

5·18 망언에 들끓은 광주·전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망언'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며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폭력 희생자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 중이다.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엄중한 정치적 단죄와 역사 왜곡 제발 방안을 촉구 하고 있다.

5·18을 모욕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해당 의원들의 결사해지와 국회·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 한국당 5·18 망언 발단

14일 5·18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명목으로 5·18 대국민공청회 를 주최했다.

이종명 의원은 공청회에서 '5·18은 폭동이라고 했는데,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5·18을 폄하했다.

축사에 나선 김순례 의원은 "중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발제자 지만원씨는 '5·18 역사는 좌익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 지씨는 5·18단체가 낸 명예훼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만큼은 우리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면서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5월 단체는 군부독재에 맞서 피땀으로 민주주의·인권을 지킨 시민을 모욕한 의원들의 언행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거세게 항의했다.

5월 단체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공청회 개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반역사적 인식에 반성 전무... 국민 분노 초래

'헌정질서 수호 행위'를 부정한 망언을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한 한국당 지도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국민 분노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정당 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보수 정당의 생

폭동·괴물집단 폄훼 이어 반성 전무 반역사적 인식으로 각계각층 '반발'

명력'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1997년 신군부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를 헌정질서 수호 행위로 판단했는데도, 한국당 지도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반역사적 인식으로 민주주의를 모독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 시·도민은 공분했다. 5월 단체·정치·교육·노동·시민사회 등 전국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일부 5월·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잇단 성명 발표와 국회 항의의 방면에 이어 규탄 집회와 범국민적 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세 의원을 비판했다. '공청회로 극우세력을 자극, 한국당 진당대회에서 표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당은 12일

5·18 망언에 뒷북 사과했다. 하지만 세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광주를 찾은 김진태 의원은 사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 엄중한 단죄·왜곡 근절 노력 시급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3일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추가 회의를 열고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조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했다.

5월 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한국당이 세 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월 단체는 "민주주의 역사를 폄하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와 국민에게 상처 입힌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

이 없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는 또 여야가 5·18 왜곡·비방·날조를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보완·통과시켜 왜곡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5·18 정신을 거스르는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으로 대통령령으로부터 재추천(3명 중 2명) 요구를 받은 한국당에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역사관이 검증된 위원을 하루빨리 재추천하거나 이를 하지 못하면 추천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5월 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국회와 한국당이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경우 한국당 해체 운동 등 다각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5·18 왜곡 근절 활동을 펼친다.

김후식 5·18 부상지회장은 전남 국회를 찾아 '5·18 망언은 도저히 제 정신을 갖고는 할 수 없는 만행이다. 자식·남편을 잃고 39년 간 명예회복도 못하고 울고 있는 어머니들 가슴에 또 칼을 찌어하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 의원이 제명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수두' 예방이 최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 리온에서 수두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단속 예고를 실시한 뒤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포획은 국내 치어 방류와 포획 금지구역·기간·크기

등의 단속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된다.

또 일부 항로상이나 함께 내어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강행하면서 항해선박들의 해난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실뱀장어

본격 포획시기(3월1일~5월31일)에 앞서 단속예고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실뱀장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규 기자

차선 변경하다 택시기사 숨지게 한 6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차랑에서 내려 도로를 걷던 택시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65·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트럭을 몰던 중 차랑에서 내려 도로 위를 걷던 택시기사 B(6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트럭을 몰고 2차선을 달리다가 앞서 정차한 B씨의 택시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트럭 후사경에 부딪힌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평소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즐지어 정차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류점서 돈 127차례 훔친 30대 종업원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의류점에서 판매대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김모(3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10시41분께 광주 서구 지평동 한 의류점 내 현금출납기에 있던 9만원을 가져가는 등 127차례에 걸쳐 현금 1353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인이 출근하지 않는 날 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려 현금출납기에 있던 판매대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점 주인은 카드결제기기를 수리하다가 판매실적과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틀림없을 위기에 처하자 퇴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인 자리 비운 상가 텅 5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손님을 가장해 상가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내방동 모 PC방 현금출납기에서 19만원을 가져가는 등 광주·전주지역 상가에서 2차례에 걸쳐 총 69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2017년 3월에 출소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시간에 PC방·술집 등지에 손님으로 위장해 찾아간 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 화재 근로자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화재가 나 3명이 숨졌다.

14일 대전시소방본부와 한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 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A(32)씨와 B(25)씨와 C(25)씨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54대와 인원 156명을 투입,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전 9시 25분께 진화했다.

폭발 장소는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공장으로 파악됐다.

추진제 연료를 분리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파손은 없고 높이 15m의 이형공실만 전소됐다.

'천무'는 구경 230mm 사거리 60km로 국민명칭공모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고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이다. 지난 2016년 2월 처음으로 시격장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로켓 추진제인 고체연료 충전중에 폭발이 발생, 모두 5명이 숨졌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